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 |
|---------|---|
| 하나님 앞으로 | 지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18-25 십자가의 도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150장 / 갈보리 산 위에 (통일찬송가 135장) |
| 헌신과 나눔 | 봉 헌 / 구은강 집사, 홍현근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 삶과 세상으로 | * 주께 가오니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묵상에세이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려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니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 밖에 살이 못할 것입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할 때 더욱 미안했습니다. 솔맨이 몹시 괴로와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 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나갑시다. 앞으로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맨은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자비하신 분이나 고난 당하시는 얼굴로 그리는 대부분 화가와 달리 소랜은 예수님의 얼굴을 리더십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그렸습니다.

이 성화는 수 백만 장이나 팔렸고 그는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하고 100년을 살아도 불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불행한 삶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찬 주간의 기도

"작은 일에 짜증이나 투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므로 나의 하는 일과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루가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EM PASTOR
-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정줄리 권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25:1-7, 22-26
유다왕조의 멸망



"찬 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6-7)

교회와사역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 케빈 드영(Kevin Deyoung) 목사는 가스펠코얼리선(TGC)에 게재된 최근 칼럼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기독교인이 되는 10가지 방법(10 Ways to Be a Christian this Christmas)'을 소개했다.

1. 원하는대로 노래하라

물론,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는 그닥 좋지 않은 곡들도 있다. 그러나 '천사 찬송하기를', '주님 앞에 떨며' 등 놀라운 곡들이 있다. 열정을 갖고 큰소리로 부르라. 미소를 띠고 계절에 익숙한 소리를 즐기라. 캐롤을 11개월 간 못 들을 수도 있다.

2. 감사를 전하라

앞으로 몇 주 동안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다. 누군가가 배운 친절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살전 5:18) 감사해야 한다. 이 가운데는 물론 크리스마스도 포함되어 있다. 주변의 누구에게든 감사를 전하라. 이는 당신의 영혼에도 좋고 그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3. 휴대폰을 내려놓으라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사진을 업데이트 해보라.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의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소비되는 하나의 재료가 되게 하진 말라. 사람들의 눈을 보라. 그리고 그 순간에 충실하라. 이 세상의 비극과 소문들, 그리고 웃기고 가벼운 영상은 하루 정도 쉬어도 좋다.

4. 쿠키를 즐기라

휴일에 늘어나는 몸무게. 물론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금욕주의 역시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음식을 주신 것이다. 음식을 먹고 이에 대해 좋게 느끼면 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딤후 4:3-5).

5. 가족들과 대화하라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에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들과 대화가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주 보지 않아서 공통의 관심사가 없는 친척들과 교제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진 호기심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6. 조용한 시간을 찾으라

어떤 때는 조용히 물러나 있어보라. 10분이라도 좋다. 만약 누군가 잠들었다면, 당신의 침대에서도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라. 사역을 해보라. 일찍 일어나보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어보라. 눈을 쳐다보라. 나무를 응시해보라. 조용하게 기도해보라.

7. 기회를 위해 기도하라

2주 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한 번 만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존중해주실 것이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말해볼 수도 있다. 밥을 먹으면서, 물건을 사면서 또는 비행기 안에서 대화의 기회를 놀랍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선물을 하라

당신의 교회는 아마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구제 선교나 기독교 서적들, 선교 단체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수 많은 곳들이 있다. 녀석해지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많이 건넨진 않을 것이다.

9. 불평을 그치라

크리스마스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해칠 수 있다. 집이 너무 추울 수도 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불쾌한 친구들이 더욱 당신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불평보다는 감사의 태도를 기뻐하신다. 만약 우리가 몇 가지 불쾌함들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10.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 이상 즐겨 들으라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났다. 이사가 7, 9장, 마가서 5장도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쩌면 여러분이 매년 들었던 설교의 본문일 수도 있다. 성경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체로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던 구주 예수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2.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선교와 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합니다.
 3. 결산과 예산의 시기입니다. 각 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년 사역들을 점검하며 결산합니다. 그리고 2019년 사역을 계획해주시요.
 4. 연말연시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합니다.
12/24 성탄축하예배 / 주일학교 & Youth 성탄 발표회
12/31 송구영신예배 / 성찬예식 / 연말 Oikos 셀모임
신년특별 새벽기도(1/2-1/12, 주중 6시 & 토요일 7시)
 5. 17주간 성경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주시요.
 6. 자녀들의 겨울 방학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가족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7.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 교우 동정: 김태성 집사, 알라바마 Montgomery로 이주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 | | | | |
|---------|-------------|-------------|-------|-------|
| 주일예배기도 | 12/9 | 12/16 | 12/23 | 12/30 |
| | 최선운집사 | 구민집사 | 오정은집사 | 김훈태집사 |
| 금요일예배기도 | 12/14 | 12/21 | 12/28 | 1/4 |
| | 박진성집사 | 정줄리권사 | 최내권집사 | 구은강집사 |
| 주일헌금위원 | 12/9 | 12/16 | 12/23 | 12/30 |
| |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 유덕하집사/최선운집사 | | |
| 주일안내위원 | 12월 | | | |
| | 김훈태집사 | | |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포기하지 않는 사랑 / 고린도전서 1:1-17

바울의 서신들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있다. 발전된 항구도시 고린도의 문화는 세속적이고 퇴폐적이었다. "고린도사민처럼 산다"는 속어가 있을 정도로 돈과 물질, 쾌락과 욕망이 지배적인 고린도에서 일년 반을 머물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파당, 극심한 성직문란, 성도 간의 송사, 심각한 방종, 무절제한 성찬 등 문제투성로 돌변했다. 이는 분명히 바울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해결방법을 찾는다.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게 한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문제들을 차근차근 권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악화되어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기에 이른다. 이후 문제는 더 커진다. 거짓 사도에게 교회와 성도가 현혹돼 바울의 사도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까지 한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는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무한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실망과 좌절, 근심과 격정으로 가득하다. 사람 때문,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 한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자. 예수님을 따라, 바울을 따라, 사람이던 사명이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십자가의 도 / 고린도전서 1:18-25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왜 거리끼는 것이었습니까?

헬라인들은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 고린도전서 1:18-25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중요한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들은 메시야가 오시면 더 많은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표적과 함께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야로 불리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자로 오셔야 할 메시야가 패배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셔야 할 메시야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 stumbling block 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니 당연히 멀리하고 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헬라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깨며,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비판하며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죽음이 자신들의 구원과 무슨 상관입니까? 인간의 이성만으로 따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이 나를 대신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던 십자가를 우리는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던 십자가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여지게 되셨습니까? 기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보살펴야 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섬김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가볍든 무겁든, 쉽든 어렵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묵묵히 지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겠습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December 16, 2018

기쁨, 화평, 나눔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2018년 12월 16일

4-50호

나눔의 달
 대강절 셋째 주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